금성 강단

발 행 인 : 이성오
발 행 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1004,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5월 24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시 8:3-9, 104:24-35
제목 : 창조주 하나님 · 위탁받은 인생(4)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④
: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 :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8:9)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사진)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한국 캘리그라피(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 예술협회에서 주최한 제 3회 캘리인문학 정기기획전에 전시된 작품입니다. 회원이 한 70여명 됩니다. 목사도 한 3-4분 회원으로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는 캘리인문학 기획전이 무엇인 가?"궁금하지요? 우선 인문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행복한 인생인지, 사회와 이웃과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지 그런 것들을 정립하도록 스스로 성찰하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이 전시회는 작가들이 출품한 손을 만든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관람객들에게 그런 인문학 주제들은 스스로 성찰을 하게 하는 전시회입니다. 큰 누님이 한번 오라 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전시한 작품들이 모두 인문학의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어 관람을 하면서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곳에서 제 눈을 끄는 두 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판에 새긴 글이고 하나는 사진입니다. 먼저 서판에 새긴 글입니다. 논어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 글이 나온 배경은 이러합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섭공" 이라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니 인구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섭 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날마다 백성들이 도망을 가니 천리장성을 쌓아서 막을까요?" 잠시 생각하던 공자는 여섯 글자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글이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입니다.

이 글을 직접 써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사진)가장 곁에 있는 자들에게 잘하면서 살라는 음성입니다. 내 가족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금성교회성도들에게 먼저 잘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을 보

면서 저도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더 잘 해야 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사진 다시 띄움) 전 장신대학교총장인 문성모 목사님이 출품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5월의 목회주제를 생각하면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진에 잘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사색에 잠기게 한 것은 그 사진에 쓰인 글입니다.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 이 글은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묘비에 쓴 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이 글을 보통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로 간추려 말합니다.

칸트에게 '하늘의 별'은 필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의 창조의 법칙을 상징합니다. 모든 자연계는 이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주신 법칙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도덕률을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움과 경건함을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임으로 밤하늘을 반짝 반짝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자연, 우주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전권을 다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라고 4가지 제도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가정 국가 자연 (노동포함한 문화)입니다. 이 4가지를 잘 관리하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다스려야 할 까요? 그중에 오늘은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관리하려면 자연에 대한 태도를 우선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대 자연입니다. 특히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작품입니다. 이 걸작 품인 자연을 잘 관찰하면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자가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위대하게 창조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3-8을 같이 읽겠습니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섭리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9절입니다. "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리심을 발견한 다윗은 시 104편에서 더 깊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26을 보시겠습니다. "24.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25.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26.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특히 주목할 구절이 두 곳 있습니다. 우선 27-28입니다. "27.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

이다.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피조물들을 다 만족하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까지 다 먹이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최고의 걸 작품으로 지으신 인간을 왜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일로 즉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입을 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자연의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마6:26-28입니다.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하냐,....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6:30-32입니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주님도 다윗처럼 대자연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먹이시고 기르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구절은 29-30입니다. "29.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0절은 오늘 설교 제목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가 이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짐승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동물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의 돌고래, 상어, 참치, 멸치, 등등 육지에 거하는 동물 낙타, 타조, 얼룩말, 기린, 호랑이, 사자, 하늘에 나는 새들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 황조롱, 등등 동물들이 자식들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자연의 세계는 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세계의 질서입니다.

봄여름가을 겨울도 순환이 되지만 짐승도 어미가 죽지만 또 태어나서 자연의 질서가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의 순환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면 안 됩니다. 잘 질서가 순환되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질서가 파괴되면 인간의 삶도 고통이 따라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잘 관리하려면 이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31입니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렇게 계속 창조의 질서가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노래했습니다. 찬양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순응하면서 보존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1절에 답이 나옵니다. 31.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계속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33-34에서 고백합니다. "33.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여호와의 이런 창조의 질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키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 동물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

서를 파괴하는 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산들을 깎아서 모텔을 만들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세계를 파괴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공들어 만든 작품을 파괴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그린 미술 작품에 몰래 낙서를 하고 훼손을 했다면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죄인입니다. 그런 자들을 다윗은 하나님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런 대 자연의 창조의 질서를 감사하면 지켜나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35절입니다. "35.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할 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걸 작품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든 자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바울은 롬 1:19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이런 일을 잘 합니다. 아마 잘 관리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을 배경으로 한 노래는 심금을 울립니다. 이 노래 말을 아시분이 많을 것입니다.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없이 나르는, 꽃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 씨 뿌려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냇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파라 강촌에 살고 싶네." 나훈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젊은 시절에 노래가 좋아서 많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자연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존 하면서 대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순환하게 만드는 일 그게 자연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 순환이 잘 되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이 파괴되면 이 순환이 어긋나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처음 미국을 방문 했을 때 한 27-8년 전입니다. 그때 물 값이 자동차 기름 값보다 비싸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많은 나라이어서인지 기름 값이 물 값보다 쌌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환경이 파괴되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못하게 되고 물 값이 서서히 비싸졌습니다. 물을 사먹는 시대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두장) 거위가 물을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는 물이 필수적인 것을 절감했습니다. 나무 사람 동물 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다시 맑아졌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문화가 만들어 지는 데 함께 노력을 다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지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대 자연을 우리에 위탁해주셨습니다.

위탁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우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자연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풀 한 포기라도 꽃 한 송이라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문화와 생활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집니다. 지구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적은 일부터 잘 실천하면 하나님은 지면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